

특별기고



황학택 시인·문학박사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는 남녘, 한려수도의 정겨운 토속적인 정취에 흠뻑 젖어 살았던 소년시절을 회고해 본다. 돌이켜 보면 소년시절의 정서는 오늘의 시심(詩心)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문학은 미래를 지탱해 줄 힘이다

이 무렵 그러니까 1983년 새해가 밝았다. 탄허 큰스님께서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광주로 오셔서 필자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갑자기 보는 자리였기에 준비 없이 모셨다. 오찬을 마친 후까지 큰스님이 세상 만사에 대한 예지적 말씀을 하셨던 시간은 약 7시간 정도였던 것 같다.

광주·전남 대한민국 문학 메카

어느덧 석양이 들자 오늘은 광주에서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스님은 “아니, 인연(因緣)이다 되었어요” 하며 일어섰었다. 월정사로 가신다는 말에 “그럼 언제 날 잡아 큰 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역시 인연이 다 되었다”고 하시며 훌훌 떠나셨다.

문학작 사료집 집대성 보람

사무실 운영과 교류대회 준비와 함께 일 년 내내 전국 문학인들의 산발적 접촉과 크고 작은 문학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시루에 불 붙듯 했다. 밀려오는 서글픔은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려다. 30여 년 남편에게 사달린 내조자는 병상에서 호소하고, 자식들 또한 아버지와 문학메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중단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다. 필자의 개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고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섬 공동체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지닌 전남은 그 진행 속도가 더더욱 빨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 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수의 평균은 섬지역 0.234로 도시지역 1.20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섬 소멸 막을 지속가능한 정책 시급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키게 된다. 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은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해안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공동체역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설

‘캐스퍼’ 소비자 상생 더 신경썼더라면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역사적인 1호차 ‘캐스퍼(CASPER)’가 곧 도로 위를 질주하게 된다. GGM은 경형 SUV인 캐스퍼 양산체제에 들어가 올해 1만 2,000대를 생산하게 되며 내년에는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고이것저것 옵션을 달면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불만이 나온다. 그로 그럴 것이 GGM은 기존 자동차 회사의 고임금 구조를 극복한 생산라인 체제이고, 온라인으로 판매돼 중간유통 밀려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학동 붕괴참사 유족들 눈물 닦아줘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붕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유족들은 이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구속부상자회장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밝혀낸 경찰은 문씨의 귀국과 구속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비리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 시대, 흠어지면 산다

기지사첩

2학기 전면등교가 시작된 9월 광주·전남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방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학 1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나라 사회부 차장대우

어울리며 접촉하는 때도 있어서 교사가 이를 아우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교육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12세 오접종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 결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지광장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청소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줄어들었지만,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 게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 디지털 성범죄 무방비 노출

인터넷,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수록 청소년들에게 성,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주로 구독하는 동영상, 어플 등을 잘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만약 음란물에 접촉했을 경우 훈계를 하기보다는 성을 상품화시키는 부분을 짚어 왜곡된 성 인자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회원 가입, 프로필 작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I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아직 법·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for 전남매일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website information.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